

나주혁신도시, 기업유치·일자리 전국 으뜸

국토부 '혁신도시 성과평가'
총 사업체수 5년간 36% 늘어
고용 1.8만명 늘어 64% 증가

광주·전남(빛가람) 공동 혁신도시가 전국 혁신도시 중 최근 5년간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성과가 가장 두드러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발표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에서 나주 혁신도시는 사업체, 종사자, 여성고용, 상용 노동자 수 증가율이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참여정부 이후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정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혁신도시 미래발전전략을 제시할 목적으로 이뤄졌다.

나주 혁신도시는 혁신도시 건설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혁신역량을 제고하는 성장 동력 부문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나주 혁신도시의 총 사업체 수는 지난 2012년 5626개에서 2017년



빛가람 전망대에서 바라본 혁신도시.

7633개로 2007개(35.7%) 늘어나며 전국 혁신도시 평균 증가율 13.8%를 훌쩍 웃도는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나주 혁신도시 다음으로는 충북(29.1%)이 뒤를 이었고 부산(8.4%)이 5년 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사업체 증가는 고용 창출 성과로 이어졌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최근 5년 간 이뤄진 고용증가율 또한 가장 높았다.

지난 2012년 나주 혁신도시 총 고용 수는 2만8696명에서 2017년 4만 6381명으로 63.6%(1만8135명) 증가하며 이 역시 전국 평균 증가율 25%를 크게 웃돌았다.

고용증가율에서 주목할 부분은 여성 인력의 고용 증가율이다.

나주 혁신도시 사업체의 여성 고용 수는 2012년 1만2403명에서 5년 뒤 1만 8910명으로 52.5%(6507명) 크게 뛰며 증가율이 전국 탑 순위를 기록했다.

종사자 수에 기준한 혁신도시 및 이전공공기관 유관업체 관련 종사자의 집적도 수준도 약 4.6배가 증가했다. 이는 혁신도시 건설 이전 비기반 산업이 현재 기반산업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국토연구원은 집계했다.

나주 혁신도시는 고용의 질, 즉 안정적 일자리 창출 증가와 직결되는 상용 노동자 수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

게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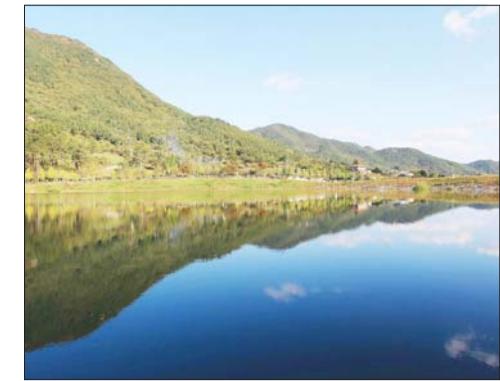
나주 혁신도시의 상용 노동자 수는 2012년 1만8528명에서 2017년 3만 2447명으로 75.1%(1만3919명)나 늘어났다.

국토연구원은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혁신성장 부문 종합결과에 대해 "혁신기반과 모두 지역의 혁신역량 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며 "나주 혁신도시는 고용증가 및 안정적 일자리 증가가 뚜렷하고 지식창출 및 경제성장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나주시가 현재까지 유치한 기업은 총 391개로 이중 혁신산단, 혁신도시클러스터 등 유치 기업은 278개였고 광주 등에 유치한 기업은 113개였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른 성과는 나주 혁신도시가 전부의 국가균형발전의 지역성장거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빛가람 혁신도시가 혁신도시 시즌2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 중앙부처, 광역자치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일자리창출, 기업유치, 정주여건 개선 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광주=강성대 기자 ksd1008@metroseoul.co.kr



동구리 호수공원 전경.

화순군 '산림치유 도시'로 12개 분야 예산 240억 투입

화순군이 산림관광, 휴양, 치유, 정원 등 12개 분야에 240억 원을 투입하는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산림치유·복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은 군 전체 면적의 73.2%인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치유·휴양·복지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산림복지 서비스 수요 증대에 대응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동구리 호수공원을 화순 대표 산림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올해 역점사업으로 동구리 호수공원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해 관광객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 볼거리 제공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06년부터 지역 도심과 가깝고 다른 지역의 접근성이 좋은 만연저수지 일대 2만2214㎡에 동구리 호수공원을 조성, 기반 시설 등을 확충해 왔다.

/전남)화순=강성대 기자 ksd1008@

신안군 '어선 임대사업' 내년 정부 신규사업 채택

박우량 군수 추진 수산정책
군비 27억 투입 총 8척 임대

국비 38억원을 요구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어업에 종사하고 싶어도 자본 여건상 어려웠던 청년 어부들에게 어선 임대를 돋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군은 이번 사업추진을 위해 '신안군 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단법인 신안군 어선업육성협회를 구성, 현재까지 군비 27억원을 투입하여 8척의 어선을 임대 운영 중에 있다.

군의 '청년소득 임대어선' 사업은 어업에 필요한 어선 및 어구를 신안군이 구입해서 어업인에게 연간 사업비의 0.5%의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주면서 어업인들이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하면 소유권도 넘겨줄 계획이다. /전남)신안=안행주 기자 abcd@



전동평 양암군수를 비롯해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에서 론크행사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암 매력한우' 갤러리아百에 론칭

올해 '대통령상'에 빛나는 영암매력한우가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west 고메이494와 고메이494한남에서 론크행사를 가졌다.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론크행사 첫날, 전동평 영암군수를 비롯한 영암군주농협장 및 매력한우법인 관계자 등 10여명이 갤러리아고메이494 한남 행사를 방문했다.

'영암매력한우'는 올해 1+이상 고급육출현율 전국 1위(2019년 기준),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대통령상 등 3개상 석권하며 품질의 우수성을 널

리 알렸다.

영암매력한우는 우수 품질로 올해 만 룸데슈퍼에 이은 롯데호텔, 롯데백화점 유통망 입점, 이번 갤러리아백화점까지 입점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이번 론크행사가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 대통령상 수상으로 품질로 으뜸임을 입증한 영암매력한우 품질을 평가하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면서 "영암매력한우가 전국대표 한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영암=김희선 기자 khs161700@

부산 해양 자연사박물관 전시해설 온라인 서비스

부산시 해양자연사박물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박물관을 찾기 힘든 관람객을 위해 23일부터 디지털 영상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전시해설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디지털 영상콘텐츠는 비대면 시대 맞춤형 전시해설로 과학문화학산 및 과학 대중화를 모색하기 위한 '부산과학기술협의회 공모사업'을 통해 제작됐다. ▲바다의 꽃, 산호(산호류 전시실) ▲아싸! 가오리(가오리류



온라인 전시해설의 한 장면. /부산시

전시실) 등 총 8편의 콘텐츠가 해양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1천8백만 원을 들여 차선도색 205면, 카스토퍼 설치 80개, 조경수 기지치기, 응벽 도색 100m², 주차장 확장 60m²의 공사 등 오는 27일까지 전체적인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전남)광양=김용학 기자 jjjacecom@

광양시는 오는 27일까지 (구)중마 상설시장 주차장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2000년에 중마전통시장이 새로 개장되면서 기존의 전통시장이 철거된 (구) 중마상설시장 주차장은 6190m²의 부지에 21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중마 중심 지역의 대형 주차장으로 거듭나 시민들

순창군, SOC 위탁자 모집 가족센터·체육관 등 2곳

순창군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참 좋은 가족센터와 동계면 종합체육관 등 2곳을 조성할 위탁개발자를 찾는다고 23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며, 신청서는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계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참 좋은 가족센터는 가족구성원의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양육부터 부부문제, 다문화 가족이 갖는 어려움 등 가족내 다양한 문제를 상담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위치는 순창읍 향토회관 뒤 편에 건립해 아이를 둔 부모들이 교통편의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순창=강성대 기자 ksd1008@

AIoT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 경북도, 사업비 21억 확보

경북도의 'AIoT(사물지능) 기반 3종 집합 시설물 안전관리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R&D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21억 원을 확보했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R&D사업'은 각종 재난과 안전 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기획, 연구개발, 실증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경북도가 제안한 'AIoT 기반 3종 집합 시설물 안전관리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은 30년 이상된 낡은 건축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관리가 시급하고 지진도 높아 도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경북의 특수성에 착안해 이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기획됐다.

/경북)안동=김홍기 기자 gj2136@